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39 (2021. 3. 27.토)

1년 같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 또 그런대로 지낼 만한 일이지 싶습니다. 낮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가니 팬을 틀어놓고 자느라 아이들이 모두 감기에 걸려 열과, 기침과 콧물이 끊이지 않아 결국 지난 수요일에는 학교에 3명의 아이만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곳곳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감기에 걸려 한차례 소동을 치렀습니다. 저도 감기약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방국 정부는 예상한 대로 학교 휴교령을 5월 22일(토)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결국 1년이 훨씬 넘는 휴교 상태가 되는 것이네요. 지금도 일일 확진자가 3,700명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사람도 1/3이 넘어 보입니다. 메헤라즈 아버지도 사우디 아라비아로 일하러 나가려 하다가 출국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아 집에 대기 중입니다. 무증상 환자였던 것이지요. 덕분에 메헤라즈도 2주자가 격리를 시켰고 음성 판정 이후에 학교에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한국에서는 종종 벚꽃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럽부럽... 여기는 언제나 사태가 안정될런지요... 그냥들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저를 감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현 상황

1. 3월 1일(월)부터 시작했던 학교는 문 연지 1주일 만에 다시 닫았습니다.
 - 1) 학교 휴교령이 1차 3월 31일(수)까지 연장 되었고 게다가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 2) 결국 방국 정부는 어제 3월 26일(금)자로 2차 연장으로 들어가 5월 22일(토) 라마단휴가 이후로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 3) 현재 아가페는 home에 있는 아이들 7명만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TV 영상 보며 예배드리고 방국가 부르는 모습



홈에 있는 7명 아이들의 수업



리따 선생님 반(에호산,사벨,모리엄)



루비나 선생님 반(메헤라즈,압둘)



모울리 선생님 반(파힘,샤밌)

2.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 홈 운영도 다시 고려해야 하는데 주님의 특별한 보살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 마당이 있는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근처 현 널서리가 운영되는 건물 1층을 모두 얻고 2층 1채도 얻기로 계약했습니다.
 - 1) 1층에 두 집을 추가로 얻어 벽을 헐어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 2) 그러면 1층은 널서리 한 집, 학교 두 집이 되는 것인데 너무 비좁으면 널서리를 2층에 사무실 용도로 얻은 집으로 올리고 1층을 전부 학교로 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공사가 마무리 되면 7월 1일까지 이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4. 오피스 일을 맡아 해 줄 매니저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투스 부부가 많은 일들을 해주었지만 나이도 많고, 힘이 부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느껴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한 두건의 일을 해결하면 되는 일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혼자 해보려니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역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 널서리는 지금과 같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간식 지급 없이 테라피만 시키는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7. 라킵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3월 24일(수)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몇지를 앓아 병원에 가 X-RAY를 찍었더니 폐렴이어서 즉시 입원시켰습니다. 1일 1회 항생제 투여를 했더니 하루 만에 숨소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3월27일(토)에 의사가 퇴원 후 약물과 호흡기 치료를 3일간 계속 시키라는 오더를 내려 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라킵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8. 라자는 아직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준비도 준비이지만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 학교가 정상화 되면 데리고 올 계획입니다.

9. 이곳은 외국으로 나가 일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는지 너도 나도, 여자도 남자도...

우리 아이들 부모도 벌써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올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요르단으로 나가는데 여성은 한달에 많이 받으면

우리 나라 돈 30만원 정도... 이번에 라킵 엄마도 한 달에 15만원 벌자고 오만에 간다는 걸 그정도 돈은 이곳 방국에서 이집 저집 일해도 벌수 있으니 이곳에서 라킵 보살피며 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참으로 가난과 무지의 끝은 어디인가요...

제 개인적인 상황

1. 여러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과 상황에 치여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 1)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아이들 가정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서 마음도 어려웠고,
 - 2) 학교 재오픈 상황도 예측이 안되어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 3) 마음을 굳게 먹고 열었던 학교를 일주일 만에 다시 닫으면서 또 내가 내 의욕만 갖고 달렸구나 라는 회의감에 선배 사기 사님을 붙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 4) 이놈에 자기의는 나이를 먹어도 왜 약해지기는 커녕 점점 완고해지는 걸까요? 참으로 내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이곳에 보내 쓰시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땀에 주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심이 죄송합니다.
2. 리빠와 모울리의 일대일 양육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 힘들지만 은혜가 큼니다. 이들이 누군가에게 일대일 양육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방국상황

1. 4월14일(수)부터 라마단 금식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연초에 있는 이스떼마(부흥집회)는 취소됐는데 라마단과 고르반 이드가 남아있습니다. 시골 등으로 이동이 있는 시기라 코로나 확산우려가 있는데 방국 정부도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 입니다.
2. 백신은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오히려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에 다시 인도에서 들어 온다는 소식은 들리고 재방 외국인도 접종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해 맞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 때문에 열이 나서 찢찢 매는 상황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 2) 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 운영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스쿨 및 홈 공사 후 이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일정과 인력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전반적인 운영을 돕고 오피스 일을 위한 신실한 매니저가 구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라자를 데려올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6)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아가페 모든 아이들과 스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6-27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리고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는 기도의 용사 분들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